

CBS 뉴스 부활 20주년 및 창사 53주년 축하 메시지

CBS 뉴스 부활 20주년과 창사 53주년을 축하드리며, 임직원과 애청자 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인 CBS는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양심과 정의에 따른 정론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암울한 독재 시절에는 민주세력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1987년 보도기능이 부활된 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새 의제를 공론화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성장한 '희망의 소리' CBS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 속에 더 큰 발전을 이뤄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CBS와 제가 소망하는 나라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좀더 넉넉하고, 국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러한 선진한국은 경쟁과 성장만을 강조해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균형과 연대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도 재기의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양하고 균형 있는 공론의 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전략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창조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CBS가 이러한 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사 53주년을 축하드리며, CBS의 무궁한 발전과 애청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